그냥 용서 좀 안하면 안 되나?

(마태복음 18:21~35)

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그냥 용서 좀 안하면 안 되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그냥 용서 좀 안하면 안 되나?'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형제로 여기시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절에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본문의 35절 말씀도 이 말씀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듯이, 나에게 범죄 한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까이 가져오신 것은 너무나도 반갑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을 너무 쉽게 자주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야 몇 사람이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용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고 겨우 참고 넘어갈 수는 있어도 누군가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은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손해를 입었으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괘씸한 사람에게 속 시원하게 앙갚음을 해주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즉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490번은 그만두고서라도 한 사람이 내게 490번 잘못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부사이에서 매일 같이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는 상황이나 되어야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490번이란 무조건 무한대의 의미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21절을 보면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고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랍비들은 세 번을 용서하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베드로는 일곱 번을 용서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으리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기대와는 달리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편 본문의 베드로의 질문에 '형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형제'라는 표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들을 통해 이미 살펴본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부르신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셨고 14~15절을 보면 이에 더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죄라도 무한정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본문 35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표현이 바로 '나의 하늘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을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다. 용서를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예수님께만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남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용서는 말로 하는 용서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에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많은 경우에 보복하지 않고 그저 참고 넘어갑니다. 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지만 스스로 처벌을 주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마음에는 여전히 피해의식이 쌓이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복수를 참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으로부터 하는 용서를 위해서는 피해의식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몫이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때에 누구나 화가 나고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피해의식을 갖지 않아야 한다니 가능한 일일까요?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피해의식을 억누르고 살라고 말씀하셨다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예 마음에서 피해의식을 갖지 않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겉으로만 참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없다면 천국에는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피해의식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무엇을 피해보셨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이후를 보면 유명한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로마 제국에 바치던 세금이 800달란트였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비한 금은 3000달란트였고,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선물한 금이 120달란트였습니다. 앗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만 달란트는 일개 종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빌려줄 수 있는 주인도 없으며 이 돈을 허비할 수 있는 종도 없습니다. 한편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따라서 백 데나리온은 만 달란트와 비교하자면 비교할 수 없는 푼돈이었습니다. 환산해보면 60만 분의 1정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드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토록 극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에 우주보다도 값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야만 하는 값진 마음을 허투로 쓴 죗값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용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괘씸하게도 고작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손해 보는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속수무책으로 살아야만 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유린하는 것을 방치해야만 한다는 것일까요? 때로는 일벌백계의 마음으로 본때를 보여주어야 인간 세상에서 정의가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당 490번 씩 무한정 용서를 하다보면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는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두세 사람은 예수 이름을 붙잡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예수님의 동선에 마음을 머무르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이들이 곧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형제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많이 가짐으로써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세상의 가치를 마음에서 뿌리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게 지음 받았기에 채워짐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다 버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만족하려는 사람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예수 이름을 붙드는 두세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기 낮춤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의 자아의식을 가짐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곧 세상의 가치에 대한 죽음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가치들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는 상태로 부활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죽었으니 마음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삶에는 여전히 몸으로 대하는 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집이 있으며 얼마 되지 않지만 재산도 있으며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고 직업도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한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서 내 이름과의 연관성을 가진 일들에 대해 손해를 입히거나 잃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존심이나 명예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사로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되었다면 이러한 유형무형의 모든 가치들이 마음 바깥에 내놓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이러한 가치들이 아무 쓸모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내게 입힐 수 있는 손해 또한 내 마음에서 내놓은 것들에 한정됩니다. 심지어는 내 몸조차도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 마음 바깥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기를 바라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붙잡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너희라 부르시고 형제로 여기시는 두세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로부터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의미 또한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나의 돈을 떼먹었습니다. 내게 물질적 손해를 입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애초에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기에 마음 바깥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받기를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애초에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몸을 마음 바깥으로 내놓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보면 쓰던 가구를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때로 쓸 만한 가구가 나올 때에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때에 자기 집안에서 내놓은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고 따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가능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내놓은 대상에 대해 일어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은 자의 자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빼앗아 가거나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껏 손해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상은 육체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의식을 갖는 한 세상의 가치들은 필연적으로 마음에서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서 내놓았으니 잃어도 손해가 되지 않고 피해의식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꾸만 피해의식이 생겨난다면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못했거나 십자가가 생활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용서해 대해서 생각해보자면 용서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바깥에 내놓은 삶은 방치될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은 참으로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도 유산 앞에서 밥그릇은 스스로 챙겨야만 합니다. 아무리 마음에서 세상의 가치를 내놓았다고 할지라도 용서만 하는 삶을 산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자아의식을 갖는 사람의 삶은 결코 방치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세상의 모든 가치를 마음에서 내놓을 때에 그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나의 집도 가족도 건강에 대해서까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잊어버린 삶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 지켜지고 활용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들을 내 마음에 둘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둘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의 가치를 둔다면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의 주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를 가르쳐주신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의 주권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이 방해받지 않고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내게 허락된 일을 망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친척이 부모님의 유산을 가로챘을 때에 나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나에 대한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내 몫을 잃게 된 것이 아닙니다. 친척이 나의 몫을 탐하고 빼앗기 위한 계획을 할 때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돈을 잃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내게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것이 정당한 나의 몫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게 독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아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잃은 것은 소중한 가치가 아닙니다. 분리수거장에 버린 가구처럼 필요 없는 가치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잠들지 않고 시들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나에 대한 아버지로써의 사랑이 들어있고 전지전능하심이 담겨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결정하시고 내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꼭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일이나 소유물이 있다면 누구도 그것을 빼앗거나 망칠 수 없습니다.
설령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 자존심이 유지되는 편이 낫다고 하나님이 느끼셨다면 자존심을 건드릴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면 그 자존심은 없는 편이 낫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지켜져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찰 10억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금고에 넣거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투명한 금고와 같으십니다. 하나님이 10억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길바닥에 10억을 던져놓아도 오만 원짜리 지폐 한 장도 없어지지 않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내 명의로 주어진 세상의 가치들을 마음의 금고에 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들을 마음에 담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가치이신 하나님은 담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거지 나사로가 아닌 지옥에 가는 부자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세상의 가치를 담고 있었기에 누군가 그 가치에 손해를 입히면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피해의식에서 시작된 마음으로 상대를 미워하는 동안 나 자신을 지옥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대상은 세상의 가치들이 아닙니다. 잃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 없는 것이라서 가져가셨을 뿐입니다. 설령 그것을 되찾는다 하여도 나를 죽이는 독이 될 뿐입니다. 부자가 자녀를 망칠 때에는 귀중히 여긴 돈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차라리 돈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벌어져서 망하고 타락하고 죽기까지 합니다.
사기꾼에게 돈을 잃게 되었어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일입니다. 내게 없어야 할 돈이기에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으로 보실 때에 없어야 될 돈이니까 없애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 담긴 세상의 가치들을 낡은 가구 버리듯이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내놓은 세상의 가치들은 버려져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명한 금고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 사용되고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일이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죽인

사건일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죄 없이 재판을 받는다면 억울할 텐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역사상 가장 억울한 사건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억울하게 여기시지 않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무엇을 억울하게 여기겠습니까?
몸에 생긴 종기에서 나오는 고름을 아까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명래 고약을 붙이면 고름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름이 사라질 때에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의 의식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피해의식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으로부터 또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음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내 명의로 주어진 것들을 빼앗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은 기가 막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뿐입니다. 내 명의로 주어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누구도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피해의식을 결별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악한 자라도 내게 피해를 줄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권면하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